

지역 소식통



김희옥 부시장, 지평선 문화축제거리 현장 방문

김희옥 김제시 부시장이 지난 27일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지평선 문화축제거리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평선 문화축제거리 조성사업 및 화동길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평선 문화축제거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4억9,900만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도로정비를 통해 김제시의 중심가 로인 근대 역사문화 거리를 정비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동시에 낙후된 구도심 환경개선과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구도심 내 도로를 활용해 도심권 축제가 개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낙후된 구도심 환경개선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 시와 주민들이 힘을 모아가기로 협의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문 밖은 완주

마을여행탐사단 2차 모집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센터장 조준모)가 '대문 밖은 완주'라는 이름으로 완주공공문화지원조사 '마을여행탐사단' (이하 탐사단)의 참여자를 9월 1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참여자는 워크숍을 통해 여행코스를 설정하고 활동기간 동안 자신이 발굴한 여행코스를 직접 경험하며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wanjuclture.com)-공지사항에 공고된 서식을 작성해 접수 메일(enjoywanju@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새만금 매립지 귀속결정 제도 법리적 쟁점 문제 해결책 모색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학술 세미나... 공법학회 등과 공동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의 지연상황, 규범적으로도 문제 소지 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위원장 강병진)가 한국공법학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9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새만금 관할 귀속 결정 제도의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위원과 시민, 김제공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새만금 매립지 귀속결정 제도에 관한 주요 법리적 쟁점에 대해 국내 최고의 법학자들이 모여 법제도적 검토와 논의를 통해 문제점과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가 한국공법학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9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새만금 관할 귀속 결정 제도의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명지대학교 선정원 교수는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오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귀속결정에 대한 형량요소를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민주적 헌법질서와 분권적 관리에서 조화와 균형을 찾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며 높이 평가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성규 교수가 ‘매립지 귀속결정제도의 법적 고찰’을 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단순히 정치적, 정책적으로 논의될 문제가 아니며, 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가지는 규범적 의미에 보다 천착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안동대학교 이혜진 교수는 ‘매립지 관할귀속결정의 기준 및 대법원 판결의 평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나갔다. 이 교수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귀속과 관련된 법리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관할귀속 결정의 장기화는 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져 지역 갈등 심화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속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남대학교 정훈교수의 사회로 정주대학교 최철호 교수, 서울대학교 이은상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박사, 전북대학교 김소연 교수가 참여하여, 새만금 매립지 관할 귀속결정 제도에 대한 현안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새만금 관할권 분쟁 해결의 합리적인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새만금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향후 김제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 중인 동서도로 등이 조속하게 김제로 관할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9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만경 7공구 방수제를 3.87km는 새만금 동서도로(16.47km)와 연결된 ‘하나의 도로’로서, 김제 심포항부터 제2호 방조제까지 총 20.3km를 잇는 도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지평선축제 추진상황 점검 ‘꼼꼼하게’

축제 준비 전반 살펴

모두가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29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정성주 시장 주재로 부시장과 국단소장,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김제지평선축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강기수 관공홍보축제실장의 축제에 대한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부서별 담당 프로그램 추진 상황과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계획을 공유하는 등 축제 준비 전반에 대해 살폈다.

이번 축제는 아궁이에 쌀밥을 지어 먹는 기존의 농경문화 체험과 더불어 대지아트 집라인 체험 등 신규 프로그램, 불꽃놀이와 화려한 레이저와 멀티미디어쇼가 더해진 지평선 파이널 판타지쇼 등 낮부터 밤까지 남녀노소, 내·외국인 모두 온종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특히 지역 특화품목인 김제 가루쌀을 활용한 쿠킹클래스와 지역 농·특



산물을 연계한 대형 먹거리장터, 그리고 맛보자고 컴퓨터를 통해 선발된 관내 우수 맛집의 먹거리를 선보여 농가, 상가를 비롯해 쌀 산업까지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지평선축제를 찾아주시는 관광객과 축제에 참여하는 지역민 모두 불편함 없이 즐겁고 특별한 추억을 새기는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역량을 결집하여 축제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명예 문화관광축제인 제26회 김제지평선축제는 ‘지평선의 꿈! 세계를 날다’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벽골제를 중심으로 김제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 추진상황 공유

완주군, 축제 추진위원회 열어

완주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12회 와일드&로컬푸드축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추진위원 20여 명을 소집해 3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 28일 열린 회의에는 군의원, 문화·예술·음식 전문가, 완주에서 활동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기업체 등으로 활동하는 추진위원이 모여 행정과 축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임필환 축제추진위원장은 “완주가 가진 특장점을 살려 올해 더욱 ‘와일드’하고 ‘로컬푸드’한 축제 콘텐츠를 마련했다”며 “지역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축제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주군 와일드&로컬푸드 축제는 ‘더 맛있는 완주! 더 맛있는 완주!’ 비전 아래 ‘야! 야! 맛있는거! 야! 야! 맛있는거!’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에는 사랑천 맨손물고기 체험과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인기를 끌었던 트라이클라이밍을 비롯하여 와일드드래킹, 사랑천 부표건너기, 다람쥐 통, 유로번지 등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해 한층 강화된 와일드한 이색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성공적인 와일드



드&로컬푸드축제 개최를 위해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해보다 더욱 맛있고, 재밌어질 축제를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고용률 전년 대비 2.3%p 상승한 68.7%

올 상반기 고용률 역대 최고치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2024년 상반기 고용지표에서 지역 고용률이 전년 대비 2.3%p 상승한 68.7%를 기록하며 통계조사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주요 고용지표’에서 김제시 고용률은 68.7%로 전국 평균 63%와 전북 평균 64.4%를 모두 상회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1,500명이 증가한 4만8,900명으로 집계됐으며,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0.9%p 감소한 2.1%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역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양질의 인구 구조 상황을 보여주는 경제활동 인구수도 전년 대비 2.3%p 상승해 역대 최고인 5만2천을 기록했다.

중상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 역시 1년 이상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는 상용근로자가 1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1,700명이 늘어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이번엔 새로 포함한 지역 활동인구의 경우 김제시는 8만2,000명으로 나타났으며 9개 도시 지역의 15세 이상 거주인구 대비 지역활동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경기 포천시(123%), 김제시(114.0%) 순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가 국내·외 경기침체와 저성장, 지역소멸 위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정책에 집중된 결과로 해석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강점을 살린 일자리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 고용시장의 안정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